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지성, 메시 발 묶는다

초속 7.53m의 순간 스피드 활용... 완벽 봉쇄 진두지휘

‘박지성 활용법이 곧 메시 봉쇄법!’

한국 축구대표팀의 키플레이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인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23·바르셀로나)와 한 판 대결을 벌인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B조 첫 경기에서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한 한국 대표팀은 17일 오후 8시 30분(이하 한국시각)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2차전을 치른다.

나이지리아와 1차전에서 1-0으로 이긴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다. 한국 대표팀은 그리스를 상대했을 때와는 다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이영표(알 힐랄)도 말했듯 그리스와 경기에서는 승점을 따는 것이 중요했지만,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는 승점을 잃지 않으려는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

승부의 핵심은 박지성과 메시의 중원 대결이다. 아르헨티나는 메시 말고도 세계적 공격수들이 즐비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일단 메시의 발을 묶는 것이 급선무다.

17일 밤 중원사령관 대결

한국은 그리스와 경기에서 박지성을 왼쪽 미드필더로 내세운 4-4-2의 주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는 박지성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우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린 4-2-3-1 포메이션으로 싸울 것이 유력하다.

아르헨티나도 나이지리아와 1차전에서 메시지를 왼쪽 공격수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좌·우에 앙헬 디 마리아(벤피카)와 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를 내세운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한국과 2차전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지성과 메시의 중원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지성은 소속팀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 메시에 판정

승을 거둔 적이 있다.

2008년 4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메시지를 봉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0 승리에 큰 힘을 보탰다.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던 박지성은 오른쪽 날개 메시를 꽂고 묶었다. 메시가 중앙 미드필더로 옮겨 박지성도 똑같이 자리를 옮겨 메시지를 무력화했다. 박지성은 이날 무려 1만1962m를 뛰었다.

지난 그리스전에서 박지성의 순간 최고 스피드는 초속 7.53m(시속 27.09km)로 한국선수 중 가장 빨랐다.

메시를 어떻게 막느냐는 아르헨티나는 물론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모든 팀의 숙제였다.

사상 첫 원정 대회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도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서 대등하게 맞서려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막느냐가 중요하다. 중원으로 옮겨 진두지휘할 주장 박지성의 활약이 다시 한번 필요한 때다. /연합뉴스



태극 전사들 아르헨전 준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개막전인 그리스와 1차전 승리로 쾌조의 출발을 한 축구대표팀이 베이징 캠프인 루스텐버그로 돌아와 아르헨티나와 2차전 준비를 시작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제공한 전세기를 이용해 루스텐버그에 도착하고 나서 올림피아파크에서 회복훈련을 했다.

태극전사 23명 전원이 가벼운 러닝으로 몸을 풀 뒤 전남 그리스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선발로 뛰었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11명은 자율 훈련을 했다.

피부 발진에서 완쾌된 조용형(제주)과 베테랑 미드필더 김정우(광주 상무)는 다른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봤고 ‘캡틴’ 박지성은 허정무 감독과 필드에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나머지 선수 12명은 레이몬드 베르하이엔 피지컬코치의 지휘 아래 체력 훈련을 했다.

대표팀은 15일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2차전(17일 오후 8시30분·사커시티 스타디움)을 위해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몸푸는 태극전사들

한국축구대표팀이 14일(한국시각) 베이징 캠프인 루스텐버그에 도착한 후 올림피아파크에서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빠르고 위험한 팀”

아르헨 메시 평가

“우리의 라이벌은 우리 자신뿐이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태극전사와 맞붙을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공격 핵심’ 리오넬 메시(23·바르셀로나)가 한국 대표팀에 대해 “빠르고 위험한 팀”이라고 평가했다.

메시는 14일 새벽 요하네스버그 프리토리아 대학교 ‘하이퍼퍼포먼스 센터’에서 치러진 팀 훈련을 끝내고 공식 기자회견에 참가해 “한국에는 빠른 선수가 많다. 볼을 소유했을 때 위험한 팀”이라고 밝혔다.

메시는 ‘한국-그리스 경기를 봤나?’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경기에 집중하라 몇 분밖에 보지 못했다”며 “한국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공수 전환의 속도가 빠른 강한 팀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B조에서 최대 라이벌이 한국인가?”라는 아르헨티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우리의 라이벌은 오직 우리뿐이다. 우리 스스로만 잘 지키면 된다”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허정무의 용병술 히딩크 닮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인 사령탑 사상 첫 승리를 일궈낸 허정무 감독의 용병술이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등 예전 외국인 감독들만큼 융감하고 혁신적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의 첫 승리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그리스와 첫 경기에서 이윤재(수원) 대신 정성룡(성남)을 주전 골키퍼로 세우면서 허정무 감독은 예전 한국인 감독과 자신을 차별화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한국인 감독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커서 나이와 경험에 무게를 둔다”면서 “허 감독이 2007년 사령탑에 올랐을 때에도 젊음과 상상력을 가로막아 히딩크와 닮아 드보카트 등이 거둔 성과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고 소개했다.

“2002년 월드컵 8강 스페인과 경기에서 선방을 펼치면서 영웅으로 올라선 이윤재를 제외할 만한 배포를 가진 감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로이터통신은 2002년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과 허 감독을 비교했다. /연합뉴스



차두리 때문에... 네티즌은 폭소만발

아버지 차범근이 해설하다 무선 조종하는 로봇?

지옥훈련 중 혼자 웃는 무한 체력 ‘차미네이터’

머리 삭발 태양열 충전... 인터넷 만화 인기 폭발

‘차두리가 로봇?’

지난 12일 그리스전에서 활력 넘치는 드리블과 강력한 몸싸움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준 차두리(프라이부르크)가 네티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차두리는 월드컵 본선 직전 가진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물러서지 않는 몸싸움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경기 후 영화 ‘터미네이터’를 패러디 한 ‘차미네이터’란 별명을 얻었다. 이번 그리스전에선 자신보다 큰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 지지 않고 매섭게 드리블하는 모습에 ‘차두리가 로봇이 아니냐’는 ‘칭찬’이 나돌고 있다.

‘차두리 로봇설’은 인터넷 만화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이 만화는 일본 선수가 달달 떨어 “그건 인간이 아니었어. 달려오는 차에 부딪힌 느낌이랄까?”란 말로 시작된다. 이어 ‘차두리가 로봇’이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한다. 첫째, 지옥훈련 중에도 혼자 웃고 있다는 점을 든다. 만화 속 캐릭터는 “지옥훈련 중에도 혼자 웃고 있었다. 그 때가 절전 모드라!”라며 차두리의 무한체력을 돌려서 칭찬한다. 또 아버지인 차범근 해설위원이 해설 중 차두리가 볼을 잡으면 조용해지는 것은 무선 조종기로 조종하는데 집

중하기 때문이라는 재미있는 이유를 든다.

차두리의 등번호도 로봇설의 근거로 사용됐다. 등번호가 11번에서 22번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에너지를 충전하는 110v 콘센트 구멍인데 220v로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이라며 웃음을 유발한다. 끝으로 만화는 차범근 위원이 감독을 그만둔 것은 월드컵을 앞두고 차두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또 차두리 영문 머리글자 ‘D R Cha’는 로봇개발자인 ‘차박사(Dr. cha)’ 즉 차범근 감독을 의미하며 머리를 삭발한 것은 태양열 충전을 위한 것이라는 재미있는 표현도 있다.

선수의 장점을 만화로 유쾌하게 풀어나간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재밌다’ ‘차두리가 진짜 로봇처럼 남은 경기를 잘 소화했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8년 전보다 강하다”

훗 주간지 한국 경기력 평가

“한국, 8년 전보다 더 강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스태이머리’가 그리스를 완파한 한국의 경기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스태이머리는 지난 13일 2개 면에 걸쳐 포트 엘리자베스의 벨스 맨델라 베이 경기장에서 펼쳐졌던 한국-그리스 간의 2010남아공월드컵 B조 1차전 소식을 전했다.

기사 제목은 ‘스트롤 인 더 파크(Stroll in the Park, 공원에서의 한가로운 산책)’로 박지성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할 경우, 다음 날 영국 현지 언론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이는 ‘공원’을 뜻하는 ‘파크(Park)’가 박지성의 영문 이름에 들어가는 것에서 착안, 박지성의 활약으로 맨유가 무난히 승리했다는 뜻이다.

스태이머리는 “박지성이 빛나는 활약으로 한국이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기억을 되살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박지성의 활약보다 한국이 그리스전에서 보여준 완벽한 경기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합뉴스